

# 사장님 힘드니 알바생은 비명...코로나 해고 현실이었다

### 3월 고용동향...직원 둔 자영업자의 몰락

### 실업급여 못 타가는 이데...고용대책 재설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시일용 근로자'와 '고용원(직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동반 급감을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포진한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사장들이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 감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 알바생들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돼 고용대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9년 5월(24만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2010년 1월(1만명)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 사장님 몰상에 알바생 비명... IMF급 임시직 감원

더 큰 문제는 고용상태가 불안한 임시일용직이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안정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 알바생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5만9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2만명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2월(44만7000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임용근로자도 17만3000명 감소했다. 이로써 임시일용직 전체 감소폭은 5만3000명으로, 1989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월(59만2000명) 감소폭을 넘어선 것이다.

이러한 임시일용직 감소 현상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동반 감소와 함께 나타났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2만4000명 늘어나는 동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5000명 줄어 들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8000명 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충격으로 울상 짓자, 종사상 지위가 가장 약한 임시일용직에게 그 영향이 전가된 셈이다.

◇ 10~20대 취약 연령대 가장 타격... 그냥 실래요

우리 고용시장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전체 취업자 수를 연령대 별로 살펴봐도 취업 이전 세대인 10~20대가 급감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2만9000명 감소해 2009년 1월(26만2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은순통계청장 사회통계국장은 "청년 취업자 감소는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도소매·교육서비스·음식숙박 분야에서 20대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고된 청년 취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 236만6000명으로 36만6000명 급증했으며, 구직단념자는 58만2000명으로 4만4000명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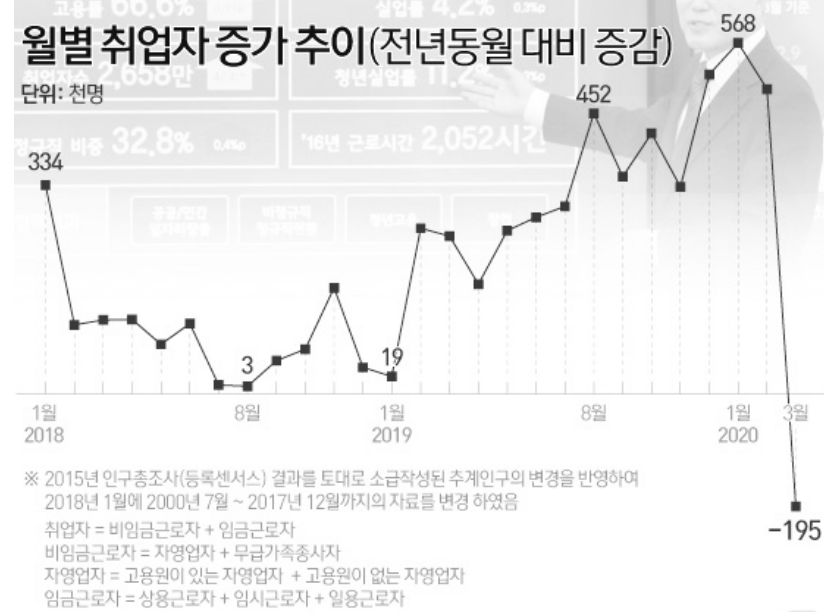
은 국장은 "노동시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최근 대면접촉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실업자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쉬었음'을 택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실업률이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소한 것이 이러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청년실업률은 9.9%로 0.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대책 재설계해야" 목소리...정부 내주 발표

이번 고용동향 발표로 '고용보험 가입자'에 집중된 현 정부 대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대표적인 고용안정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만 해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휴업수당을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고용동향에서 가



장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난 알바생과 특수고용직(특고)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어서 해직 이후 생계 유지조차 막막한 상태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나흘 전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 증가를 나타냈다.

이 역시 2009년 3월(3만6000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증가폭인데, 그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감안하면 앞서 우려된 '실업대란' 수준까지는 아

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업급여 통계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알바생이나 특고를 포함하지 못하는 탓에, 오히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 주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특단의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와 특고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긴급 일자리 공급 방안도 정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우 기자

##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낮아진다

### 다음달 18일 부터 인하

주택구매자금과 전세자금에 지원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청년버팀목 상품은 다음 달 8일부터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것으로 한은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하락했다.

일반디딤돌대출의 경우 연 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평균 0.25%를 인하여 1.95~2.70%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자가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에 고

려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매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식자료)보다 저렴하다.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고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의 경우 평균 0.2%p를 인하여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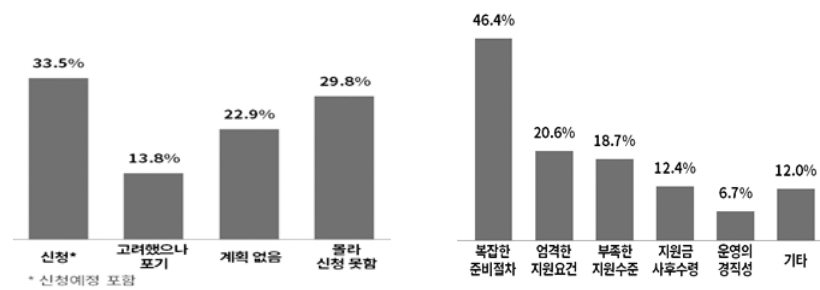
일반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평균 0.2%p를 인하여 2.10~2.70%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대출의 경우 다음 달 8일부터 대출연령(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과 한도를 상향하고 대출금리(1.8~2.7%→1.2~1.8%)를 인하한다.

조인호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복잡”...기업 10곳 중 8곳 어려움 겪는다

### 대한상의, 소상공인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조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를 조사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3곳 중 1곳은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 29.8%가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고 답했고,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도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고,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기업은 20.5%였다.

활용 애로 요인으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순이었다.

소상공인들에게 복잡한 서류와 절차는 지원금 신청의 최대 걸림돌이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영세해 서류 준비할 여력도 부족하고 조연을 받기도 어렵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자료, 근로자와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에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했으나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요건이 엄격하다고 호소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 수령 후에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환수조치 된다.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금 수준이 휴업수당의 90%로 상향조정됐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휴업수당의 11.39%)도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보다 무급휴직이나 재고용을 약속하고 권고사직을 결정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 CU, 달고나 마카롱 등 디저트 시리즈 출시

편의점 CU는 달고나 디저트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디저트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리즈는 400번 이상을 저어 야 맛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달고나 크림을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으로 마카롱, 크림케이크, 롤 빵, 캔디

등으로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다.

첫 주자로 출시된 쫄쫄한 달고나 마카롱은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쫄쫄한 CU 특제 꼬꼬(마카롱의 겉과자)에 우유, 라떼, 달고나 세가지 맛의 크림을 가득 채웠다. 연한색 꼬꼬부터 진한색 꼬꼬 순으로 먹으면 질리지 않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

## '버텨야 산다' 아시아나, 무급 휴직 연장...“사업량 정상화 때까지”

아시아나항공이 4월 한 달간 실시했던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항공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부터 사업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달 전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캐빈승무원,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 대상으로 5월 이후 2개월 단위로 무급 휴직 신청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동시에 매출 만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적극적으로 여객 전세기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 발 묶인 기업인들을 해외 현장으로 수송하고 있

다. 아시아나항공은 17~18일에 인천~부산 구간에 특별 전세기를 띄워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엔지니어들을 수송했다.

3월에도 삼성디스플레이 및 LG 디스플레이 소속 엔지니어들을 베트남 현지로 수송하는 특별 전세기를 3차례 운항한 바 있다. 같은달 19일에는 정부와 긴급수송작전을 통해 자국민 수송을 위한 특별기 운항으로 이란 재외국민 80명을 국내로 수송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기업들의 인력 수송을 위한 특별 전세기를 지속 편성, 경제 교류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는 동시에 실적 만회 효과도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또한 여객기 공급 감소로 증가한 국제화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Belly Cargo) 영업도 3~4월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16개 노선에 150회(왕복 기준) 운항하며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공

황에서 있는 항공기가 증가함에 따라 약 16.7%에 이르는 중정부 작업도 조기 수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안전을 확보하고 영업력 복원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제 907 회차 당첨결과 (2020년 4월 18일 추첨)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3,165,059,036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7	55,112,96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300	1,605,465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2,189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903,128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연 연일)